

9·11 테러에 '테러당한' 미국출판계의 속사정

이슬람 관련서는 '상한가', 그 외는 '바닥세'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우리나라 도서 시장에도 지난 9월 11일의 테러 사건이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 이슬람, 미국, 테러 등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제를 다룬 책들이 도서 시장에서 일종의 테마 종목을 형성하고 있는 것. 피해 당사국인 미국 도서 시장의 경우 그 영향이 매우 직접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와 관련해, 시질이 하수상하면 《성서》의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미국 출판계의 정설이다. 크리스찬 퍼블리케이션스 대표 게리 진에 따르면, 걸프전 당시를 포함해 국가적인 위기, 긴급 사태나 불경기가 닥치면 《성서》 판매량은 대략 10~20% 정도 상승한다. 그런데 지난 9월 11일에 일어난 미증유의 테러 사태 이후에는 무려 50~60%나 상승했다고 한다.

가을 시장 겨냥한 책들 부진 면치 못해

한편 영미권 및 서유럽 도서 시장의 논픽션 부문에서 각별히 주목받는 책으로 《탈레반(Taliban)》이 있다. 지난해 런던에서 불과 3천부가 출시됐던 이 책은, 테러 사건 이후 영국에서만 8만부 이상, 미국에서는 예일대 출판부가 35만부를 출시했고, 9개국 언어로 이미 번역됐거나 혹은 번역중이다. 파키스탄 출신의 저자 아메드 라시드는 지난 21년에 걸쳐 이 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레반 관계자들과의 직접 인터뷰와 아프가니스탄 및 그 주변 지역 답사를 바탕으로 씌어졌다 는 점이 독자들에게 '어필' 하는 요인이다. 라

미국 출판계는 올 겨울 닥칠 출판대란을 걱정하고 있다. 사진은 아메드 라시드의 베스트셀러 《탈레반》의 표지사진.

시드는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 출간했을 당시에는 이런 심각한

고 특수한 주제를 다룬 책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새 밭의 피였다.”

얼마 전 자서전을 출간한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전 회장 잭 웰치는, 9월 11일부터 시작하려 했던 북투어를 바로 그 날 일어난 테러 사건으로 무기한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편집자 존 베이커는 이번 사태가 출판계에 미친 영향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한다.

“정말 큰 문제는 가을 시장을 겨냥한 책과 그 작가 및 출판사들이 통상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집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 건너갔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실제로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이번 테러 사건 및 아프간 전쟁 관련 뉴스에만 신경을 쓰는 탓에, 출판사나 작가들로서는 언론매체에서 책을 홍보할 기회를 좀처럼 잡기 힘든 형편이다.

애국심 자극하는 중저가 상품으로 대응해

한편 서점 업계에서는 올 크리스마스 시장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 경기 불황은 물론 이거니와 이번 사태로 미국인들이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남아 있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편물을 통한 탄저균 확산 사태가 인터넷 서점, 통신 판매 서점에 도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계자들마저 있다.

미국 서점업계 2위의 보더스는 이번 테러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에 매장을 두고 있었던 것. 보더스측은 이번 테러 사건의 여파로 3/4분기 매출액이 두드러지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보더스측은 최근 사태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영상물,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음반, 관련 도서 등을 별도의 섹션으로 묶는 발빠른 대응으로 매출액 감소를 줄

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보더스 대표 타미 하임은 ‘벨트를 졸라 맬’ 소비자들을 감안해, 이번 크리스마스 시장을 겨냥해서는 중저가 위주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미국의 교재 전문 출판사들이 이번 테러 사건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특히 역사 교재를 개정하는 데 열심이라는 점이다. 맥밀란/맥그로힐은 내년 초 교재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대부분의 교재 출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아직까지도 진행중이며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적절하고 균형 있는 서술을 담은 책은 빨라야 내년 가을쯤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관계자들이 많다. ■

